

진귀한 '패불' 박물관에 나루다

국립중앙박물관 보물 제1266호 금당사 패불 8월 1일까지 전시

높이 8m의 대형 불화가 사찰 밖으로 나와 일반인들에게 선보여진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최광식)은 보물 제1266호 전복 진안 금당사 패불을 8월 1일까지 불교회화실에서 전시한다.

금당사 패불(사진)은 높이 8.29m, 폭 4.55m로 1692년 그려진 작품이다. 패불의 대표적 형식 중 하나인 '보살형부처'를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금당사 패불은 미륵패불화의 대표적인 무량사 패불(1672)과 그 모습이 굉장히 흡사하다. 무량사 패불은 높이 1213cm, 폭 685.5cm 크기로 비단에 채색돼 있다.

금당사 패불은 삼베 13폭을 이어 붙인 대형의 화면에 보살의 모습으로 꽃을 들고 있는 부처를 단독으로 등장시키고 있다. 이 모습은 무량사 패불이 두 손으로 용화수(龍華樹) 가지를 들고 연화대좌 위에 서 있는 모습과 거의 동일하다. 이처럼 특이한 모습의 부처는 석가모니불이 꽃을 들어 진리를 나타냈다는 범화시중(拈華示衆)을 근거한 것. 또한 원형의 두광(頭光)과 거신형 광배(曠身形光背) 형태도 동일하다.

금당사 패불의 부처는 머리에 보관을 쓰고 있는데 보관에는 화불이 표현돼 있지 않고 중앙의 아래에 2단으로 나뉘어 7구씩 총 14구의 화신(化身)이 표현돼있다. 그리고 그 좌우에 2마리씩 봉황(鳳凰) 4마리가 장식돼있다. 이에 반해 무량사 패불은 보관에 향가촉지인 석가모니불을 비롯해서 각기 다른 수인을 결한 화불 6구가 그려져 있다.

무량사 패불은 다른 화불에 비해 석가모니를 큼직하게 묘사했는데, 이는 미륵이 석가모니를 계승해 중생 제도를 실천할 미래불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미륵불의 두광과 신광(身光) 주위를 16구의 화불(化身)이 둘러싸고 있다.

금당사 패불은 오색의 원형두광과 광배가 몸 전체를 감싸며, 광배 밖으로 색색의 선들이 뿜어져 나와 불꽃을 연상시킨다. 광배 바깥으로 20구의 화불이 그려져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배영일 학예연구사는 "보관에 화신 보살과 봉황을 표현한 작품은 미륵불을 주불로 그린 무량사 패불이 유일하다"며 "보관의 화신보살은 <미륵경전(彌勒經典)>에 기술된 내용과도 일치하고 있어 금당사 패불의 본진이 석가모니불이 아닌 미륵불일 가능성도 엿보인다"고 설명했다. 무량사 패불에는 화기(畫記)에 '미륵패불탱(彌勒掛佛幀)'이라 적혀있다.

현재 미륵패불화의 존재는 많지 않다. 미륵패불화는 무량사 패불 이외에 장곡사 패불도(1673)가 존재한다. 장곡사 패불은 미륵불을 중심에 두고 6여래, 6보살을 비롯한 많은 권속들을 화면에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장곡사 패불의 미륵은 화려한 보관위에 4구의 작은 화불이 그려져 있다. 장곡사 패불 또한 두 손으로 용화수를 잡고 있다. 미륵불의 좌우에는 대보살보살과 법림보살이 현시하고 있으며 노사나를 비로자나를 다보불 석가모니불 약사불 아미타불을 비롯한 보살 십대제자 법전 제석천 사천왕 여러 천자(天子) 등 38의 권속이 표현됐다.

장곡사 패불도의 화기에는 '영산대회패불탱(靈山大會掛佛幀)'이라고 적혀 있으나 두광에 '미륵존불(彌勒尊佛)'이라고 적혀있어 미륵불임을 확인할 수 있다.

금당사 패불은 네모에 가까운 얼굴과 좌우로 치켜 올라간 눈 꼬리에 음영법(陰影法)을 적용한 눈동자, 굳게 닫힌 작은 입 등에서 부처의 위엄을 보여준다. 신체는 얼굴에 비해 왜소하나 하반신을 가늘고 길게 표현해 장대한 느낌을 준다.

의상은 붉은 색 내외에 영락장식과 문양들을 장식한 녹색의 대의를 걸치고 있으며, 내의를 묶은 흰색 끈은 가슴에서부터 흘러내려 아랫배와 무릎부분에서 고리를 만들고 연화족자 아래까지 이어져있다. 몸 광배에는 여러 가지 색깔의 연꽃을 배치했는데, 이 연꽃의 지방 부분에 28자의 범자문(梵字文)을 써 넣었다.

부처를 둘러싸고 있는 몸 광배에 범자문을 장식한 예는 이 시기에 그려진 패불 가운데 찾아 볼 수 없어 금당사 패불에만 나타나는 대표적 특징이다. 금당사 패불은 당당하면서도 중후한 모습으로 신체비례가 균형을 이뤄 17~18세기 패불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걸작으로 손꼽힌다.

금당사 패불 하단의 화기에는 이 불화를 처음 조성할 당시의 사찰 이름이 '용출산 금당사(龍出山 金堂寺)'라고 돼있었으나, 이후에 '마이산 금당사(馬耳山 金堂寺)'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패불은 명원(明遠)·처연(處軒)·위정(偉淸)·지현(致軒) 등 4명의 화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측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평상시에는 일반인들이 접하기 힘든 패불(掛佛)을 금당사의 협조를 얻어 특별히 공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006년 '법당 밖으로 나온 큰 불화, 청곡사 패불'을 시작으로 매년 부처님오신날에 이 같은 패불 테마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은경 기자 soej94@buddhapia.com



패불은 수륙재(水陸齋), 영산재(靈山齋), 예수재(豫修齋), 49재 등과 4월 초파일 같이 큰 행사가 있을 때에 의식을 행하기 위해 야외나 마당에 걸어두는 대규모의 불화를 말한다. 패불의 크기는 보통 직경은 5~6m에서 크기는 10m가 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패불화는 평소에 나무로 만든 패불함에 말아 넣어 대웅전이나 극락전 등의 후불벽 뒤쪽 공간에 보관하다가, 대규모 야외 법회가 열릴 때면 밖으로 운반해 패불대에 걸어놓고 의식을 행한다. 현재 전국 사찰에 소장된 패불화는 약 100여 점으로 알려져 있으며, 존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영산화상패불화, 비로자나패불화, 아미타패불화, 미륵패불화, 노사나패불화, 지장보살패불화 등으로 나뉜다.

상령산놀이 최초 해금 연주

성의신씨 5월 28일 남산국악당서 '미래회상' 공연

'영산화상(靈山會相)'이 해금으로 다시 태어난다.

불자 해금 연주가인 성의신씨는 5월 28일 오후 7시 30분 서울 남산국악당에서 영산화상을 바탕으로 새롭게 구성한 공연 '미래회상'을 공연한다.

영산화상은 '영산화상보살'이라는 7자를 노래로 부르던 성악곡이었으나 지금은 가사는 빠지고 가악화된 곡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정악곡으로 심오한 종교성과 철학성이 내재된 음악이다.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풍류음악 중 하나인 영산화상은 이제 몇몇 사람에게 의해서만 연주될 뿐 즐기는 이가 많지 않다.

성의신씨는 대중들이 영산화상을 쉽게 즐기고, 그 안에 깃든 아름다움을 알려주고자 이번 '미래회상' 공연을 기획했다.

성의신씨는 이번 공연에서 영산화상을 해금 중심으로 연주한다. 이 밖에 양금, 소금, 첼로, 피아노 등 동서양의 다양한 악기들을 조우해 영산화상을 들려준다.

21세기, 해금을 통해 다양한 음악의 세계의 보여주고자 성의신씨는 '영산회상'이란 말 대신 '미래회상'이란 제목으로 대중들에게 다가간다.

성의신씨는 이번 공연에서 그동안 해금으로 연주되지 않았던 상령산놀이를 최초로 소개해 눈길을 끈다. 그밖에 중령산, 세령산, 가락달이, 삼현도드리, 하현도드리, 연불도드리, 타령, 군악이 함께 공연된다.

음악평론가 윤중강씨는 "풍류의 기본은 영산화상이다. 한 음악가가 자신의 음악이 더 자연스럽고 진중하면서 깊어지길 원한다면 영산화상부터 다시 탐구해야 한다"며 "성의신씨는 정악의 진중함을 즐 위에 실은



성의신
면서 시대적 소통이 가능한 연주자"라고 설명했다.

신의성은 현재 KBS국악관현악단 연주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수월대, 서울대에 출강하고 있다. 대표 음반으로는 '성의신의 해금소리' 시리즈를 비롯해, '신묘장구 대다라니' '동다송' 등이 있다. 저서로는 <성의신 해금연주곡집>이 있다. (02)703-6599 이은경 기자

석가모니 일생 그림 · 조각으로 만나

국립경주박물관 '석가모니의 일생' 6월 6일까지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이영훈)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를 개최했다.

석가모니의 수태부터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석가모니의 일생'이란 주제로 국립경주박물관 고고관에서 6월 6일까지 전시한다.

환도사에서 소장 중인 팔상도(八相圖)와 석가모니의 탄생 모습, 성도하는 모습, 마귀를 물리치는 모



습, 설법하는 모습 등을 모티프로 한 불상도 함께 전시한다.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실의 진정환씨는 "석가모니는 왕자의 신분은 버리고 극적인 삶을 사신 분"이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석가모니의 일생을 돌아보고 잠시만이라도 참된 자아를 찾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54)740-7535 이은경 기자

금동탄생불.

물로 청소 할 수 있는 제품

■ 눈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조립식평상
· 1800×1030×400mm 가격 250,000 → 할인가 190,000원
연결이동 사용할 수 있으며 보편설치가 간단한 평상
· 폴리프로필렌소재
기 등 : 110×90×350mm 도 리 : 80×35mm
중간대 : 80×35mm 마루판 : 210×12

■ 벤치 눈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판 (폴리프로필렌)
· 규격 1500×380×400mm 가격 200,000 → 할인가 150,000

지구산업
www.bangaro.com / 방갈로.com
TEL : (063)323-3011~2
FAX : (063)323-3010
계좌번호 : (농협) 462-12-314256 예금주 : 지구산업 권영호

전국대리점모집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원인종 요가미음

민속죽염

22년전통
조상의 얼과 은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도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차용 · 피부마용)
기본 배송비 2500원 (2인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주문전화 : 0531985-1135 / 0541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zy.co.kr

GOLD Bulgama

황금빛 찹질로 건강100세!

"우리 몸을 따뜻하게 다스리는 황금빛 찹질" 불가마 골드의 온열요법은 우리 가정에 쉽고 편리한 찹질 문화를 선사합니다.

- 불가마 골드는 5분 충전으로 2~3시간의 무선온열 찹질 체험
- 삼마준마이오, 토르마린, 비정탄 등 배합으로 원적외선 및 음이온 발생
- 금 도금처리, 온열요법 및 파도음향, 유헤과 중화 기능

본 제품에 제공되는 복대 및 온열주머니를 활용하여 위와 같이 편리하게 찹질하십시오.

(주)동성행복 | 심전 대리점 송정미
011-9865-9401/070-7523-9401

건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하택신회대사 현종기 육조대사의 신간!
실증설 실증하지 않고는 설파할 수 없는 실증의 법문
방거사어록 본연을 꽃피우는 일상의 함, 말 밖의 말
선문염송16 세계 최대의 공안집 / 전 30권 중 16권
임제, 목주 선사편 공안참구의 길잡이
www.zenparadise.com

정맥선원 대원 선사님 법회 문의 02-3494-2460